

People & Life

‘1000회 금요연수회’ 이화성씨에 공로패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가 지난 17일 광주경제인총협회 ‘제1000회 금요연수회’에서 영웅패 광주경제인총협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경제인총협회 제공>

조선대 ‘외국어 위탁교육 오리엔테이션’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학장 임흥수)이 광주시교육청과 손잡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2외국어 위탁교육’ 오리엔테이션이 19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본관 4211강의실에서 열렸다. <조선대 제공>

국제와이즈먼 녹동클럽 불우이웃에 쌀



국제와이즈먼 녹동클럽 이경식(42) 회장은 최근 회장취임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0kg 100포대를 관내 불우이웃 100세대에 전달했다. <고흥군 제공>

영암군 한국지방자치 경영 종합대상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 공공자치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경영 대상의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영암군 제공>

광주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 선수권 장내 아나운서 박종민씨

“팬들 다시 경기장 찾도록 다양한 이벤트 펼 것”

“세계 최고의 실력을 지닌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인데 텅 빈 경기장을 보면 안타깝죠. 하지만 제 직업이 팬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니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팬도 늘어날 거라 믿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 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박종민(32)씨는 이같이 말하며 “직접 와서 핸드볼 경기를 보면 그 재미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내 아나운서는 경기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설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를 처음 구경 온 팬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경기 외적인 재미를 더해준다.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의 역할에 따라 팬들은 다시 경기장을 찾는 것이다.

“팬들에게 최고의 이벤트는 바로 승리예요. 다른 이벤트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경기에서 지면 그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저는 선수들이 처러 놓은 밤상에 손가락만 얹을 뿐입니다. 하하하”

박씨는 서울 출신으로 서일대 레크레이션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경기장에서 북도 치고 응원하거나 캐리커 인형을 쓰는 등 스포츠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다가 지난 1999년부터 장내 아나운서를 맡았다. 프로농구인 원주 삼보(현 동부)를 시작으로 지금은 프로야구 SK와이브스와 프로농구 SK 나이츠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박씨는 “프로농구·야구 등에 비해 핸드볼 경기의 관객이 적은 게 너무 안타깝다. 직접 보면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게 핸드볼”이라며 “핸드볼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종목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꿈은 80세의 나이에도 경기장에 서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외국어 경기장은 나이 많은 아나운서가 더욱 인기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 최고가 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관객들이 ‘아 오늘은 박종민 장내 아나운서가 나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이, 군부대 공연 자청

출연료도 전액 기부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병사로 복무하다 전역한 가수 사이(본명 박재상)가 군부대 위문 공연을 잇따라 자청하고 출연료도 전액 기부해 화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광장 국군방송 드림콘서트에 깜짝 출연해 후배 연예인 병사들과 흥겨운 무대를 같이 한 사이는 오는 20일 육군교육사령부 창설 기념공연에도 출연하며, 출연료는 전액 기부한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공연에도 나와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고 이후 공군17비행단 위문공연 때도 출연료를 기부하면서 “장병들이 삼삼오오 식사 한 끼 하게 해 달라”고 부대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北 정대세 축구 인생 그린

“꿈꾸는 스트라이커” 출간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뛸 겁니다. 지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북한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정대세 선수의 축구 인생을 그린 ‘꿈꾸는 스트라이커, 정대세 분투기’(북북서 펄)가 나왔다.

저자인 일본의 축구 전문 기자 모리 마사후미는 지난 2007년 여름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경기가 열린 축구장을 찾았다가 정 선수의 매력에 푹 빠진다. 그는 정 선수의 가장 큰 매력으로 ‘풋볼 프라이드(Football Pride)’를 꼽았다.

/연합뉴스

허정무 전 축구감독

‘무릎팍 도사’ 출연



허정무 전 감독이 MBC TV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다. ‘무릎팍도사’ 제작진은 19일 “허정무 감독이 오는 28일 녹화에 참여하며 그 내용은 다음 달 초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공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허 감독의 TV 프로그램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허 감독이 직접 공개하는 월드컵 이야기와 허 감독의 축구인생, 인간적인 면모를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녹화가 끝난 후에는 허 감독과 시청자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는 ‘황금어장’ 홈페이지를 통해 19~2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제작진은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 시도되는 시청자와의 만남을 통해 ‘황금어장’이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프로축구단 ‘1시11분 1주깃기’ 팬 사인회

최원근·최성국·김동현·주광운 등 프로축구 광주상무 선수들이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찾아가는 팬 서비스 광주상무 팬 사인회’를 열었다. 이날 사인회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2011년 출범하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1시11분 1주깃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 인재 양성 힘 쏟겠다”

광주변호사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광주변호사회(회장 노영대)는 최근 광주시 동구 자산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광주변호사회 설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직능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대 법대 이호찬(4년)씨 등 광주지역 4개 대학 법대생 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박재우·송현규·김형수(순선) 변호사 등에 대해 우수회원 표창이 주어졌다.



노영대 회장은 “광주변호사회는 1948년 변호사법 공포와 함께 창립됐으며,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 대한 봉사는 물론, 지역 법조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광주자원봉사센터 어르신지원봉사단 모집=30일(금)까지 모집, 60세 이상. 예절교육, 학습도우미, 교통봉사, 무료급식봉사, 공원 및 놀이터 환경미화, 문화유적해설, 숲 지킴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기초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문의는 국번없이 1365.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무료강좌=27일(화)~8월 6일(금) 오전 9시 30분~12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미술치료(일반·교사·학생·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가능·수강료 무료) 일산중학교 평생교육원(교수 조정아) 011-610-6589.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 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매뉴얼, 특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모집

▲니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 모집=미술치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070-8780-5901.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

370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취약,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치장,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35-3678.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가) 011-633-5747.

▲운암골 축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골 예술고. 011-609-2850(전일선).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

019-277-0007.

부음

▲정길업씨 별세 김경국·성현·일영·경옥씨 모친상=발인 2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임복은씨 별세 종길(전 평화은행 지점장)·종영(자영업)·경숙(KT 과장)·경환(교사)·경오(자영업)·중구·영자(순애·나경·경미씨 부친상 문흥기·안영범·윤문식(가야자

동차)씨 부부상=발인 21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최차남씨 별세 방기석·기근·기종·시영·선동·점옥·소현씨 모친상=발인 21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양경채씨 별세 김석열·석원·현희씨 모친상 도남용(조선대 의대학장)씨 부모상=발인 2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5.

▲박정자씨 별세 광중현·현택·경

남·복남씨 모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최삼용씨 별세 성열·남렬·기열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수생씨 별세 재원·성자·윤자·희영·옥희·선민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승환·승현씨 부친상 발인: 20일(화) 12시 정지: 김항공원 연락처: 250-4403

▲김규원·김종석·종필·종선·종기씨 모친상 양명재·노기범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00시 정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0

▲곽기부·희타·희범씨 모친상 박장식·우정균·유인식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8시30분 정지: 영암군 시흥면 연락처: 250-4406

▲함광용씨 모친상 손진호·이계홍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8시 정지: 곡성군 석곡면 연락처: 250-4413

미용까지 편리한 **금호장례식장** **남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최이규님(남/8640) 주/부: 최이규/박미연 호/인: 김지현 사/부: 이순/김기남 순애·상묘·경제·당쟁 발인 30일 발인 7월 21일 정지 영락공원	최이홍우님(남/8440) 사/부: 이기진/김은희 영/남: 이주영 사: C.N. 최경원 호/실: 402호 발인 7월 21일 정지 영락공원
최길석님(남/7140) 주/부: 최길석/김영희 호/인: 이희복 근/호: 최승주 사/부: 김원진/사준표 호/실: 101호 발인 7월 21일 정지 화순남면	

삼가故인의 冥福을 빕니다. ☎ 062)227-4000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

▲박병하·병삼씨 모친상 조영호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7시30분 정지: 진도군 의신면 연락처: 250-4412

▲김승환·승현씨 부친상 발인: 20일(화) 12시 정지: 김항공원 연락처: 250-4403

▲김규원·김종석·종필·종선·종기씨 모친상 양명재·노기범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00시 정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0

▲곽기부·희타·희범씨 모친상 박장식·우정균·유인식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8시30분 정지: 영암군 시흥면 연락처: 250-4406

▲함광용씨 모친상 손진호·이계홍씨 부모상 발인: 20일(화) 8시 정지: 곡성군 석곡면 연락처: 250-4413